

교육공무직 기본급35% 인상 합의

전북도교육청, 오늘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 교섭 결과 기본급 3.5% 인상 등에 합의하고 31일 오후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 체결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3개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약 내용을 보면 기본급 3.5% 인상과 명절휴가보전금 30만원을 인상한다. 근속수당을 2년차부터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기로 했고 정기상여금도 100만원 인상한 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위센터 5개 직종인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학교폭력상담사, 117센터 상담사에 대해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 보전금, 맞춤형복지(연 40만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단기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보조, 통학버스안전지도사 등에 대해 명절휴가 보전금 30만원을 인상한 10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보조비(월 6만원), 정기상여금(연 3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등 교원대체직종에 대해선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신설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2018년 5급 승진대상자 16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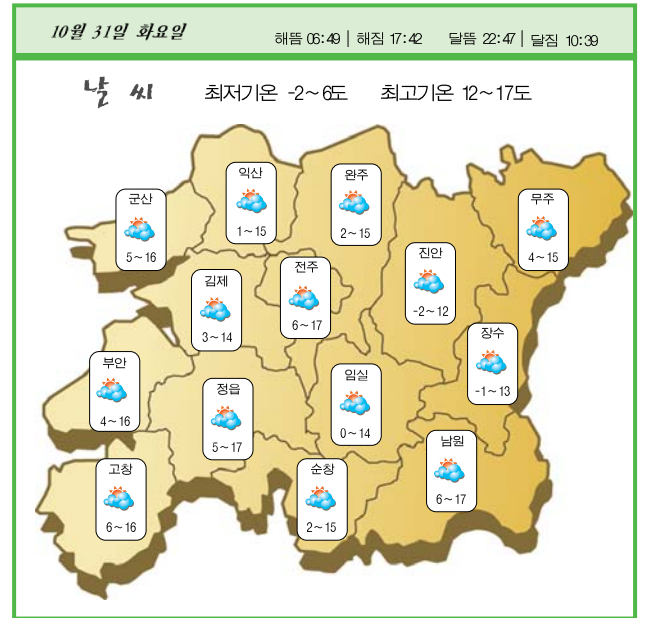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이 2018년 5급 승진대상자 16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승진대상자 중 교육행정직은 구선수 외 15명이며 공업직은 강태중 1명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정책보고서 작성 시험과 28일 집단토론, 개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5급 승진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선수(군산동원중), 김일섭(원천초), 김찬호(팔덕초), 김철기(미래인제과), 김혜은(부안중), 김호주(이리공업고), 박병관(남원교육지원청), 박영욱(칠보고), 박태규(위도고), 송미선(김제교육문화회관), 신규남(전주용흥초), 이만철(고창교육지원청), 이수정(전주교육지원청), 정성진(남원용성고), 허성철(전주신화학교) 이상 교육행정직 15명, 강태중(시설과) 1명 등 총 16명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중국 고교와 유학생 유치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국어린이 개설돼 있는 중국 고교를 찾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 이형우 국제협력제1본부부장을 비롯한 국제협력부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중국 강서성에 있는 남창제10민족고등학교를 찾아 전북대 학부 입학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북대 관계자들은 남창제10민족고등학교 갈덕근 부교장과 유럽도 부교장, 남창제10중학교와 진국화 부교장 등을 만나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의 회의를 갖고 학생들과 전북대 입학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는 지난 19일 남창제10민족고등학교 교장일행이 전북대를 방문해 이뤄진 것. 이 학교는 현재 한 중국제인이 개설돼 있어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이에 전북대는 이 학교를 직접 찾아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한국 대



학 입학 조건과 학과, 우수한 대학 환경 등을 소개하고 관심 학과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특히 저녁 만찬에는 강서성 교육청 국제합작교류처 레이지에화 처장이 배석해 양교의 교류를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은 "중국 강서성 남창제10민족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3년 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류 협의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들을 유치해 전북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아리울 청소년 꿈길터 진로·동아리 박람회 개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이 주최하고 군산진로교육지원센터와 군산청소년학생연합회가 지난 28일 도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 및 학생 자치력 함양이라는 주제로 '제2회 아리울 청소년 꿈길터 진로·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 후에 중학교 진로 동아리 체험 버스 9개, 고교 진로 동아리 체험 버스 30개 및 중·고

생 동아리들의 다채로운 공연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도내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1천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군산 지역 진로·동아리 체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학생들은 평소 학교 인턴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자율동아리 및 정규동아리 영역으로 즐겁고 다양한 진로·동아리 체험부스를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군산=김광곤기자



'미세먼지 잡는 초록식물 가드너교육'

도교육청,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순회 총 7백여명 학부모들 대상 진행

미세먼지가 환경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식물 가꾸는 법을 알려주는 학부모교육을 추진한다.

30일 도교육청은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원,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전북지부와 손을 잡고 '미세먼지 잡는 초록식물 가드너교육'을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을 순회해 각각 4회씩 총 7백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정란 전북대 원예치료학과 교수와 농업생명과학대학원생 18명이 주요 강사로 참여해 ▲케트병을 활용한 공기정화용 식물 ▲미세먼지 제거와 천연가습기 수경식물 ▲이산화탄소 잡는 다육식물 등에 대해 강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강좌에 참여한 학

부모들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9곳 중 1곳이 교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며 초록식물이 실내 공기 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융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신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갤러리 S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경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한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		
서론서예전	갤러리 R	
전, 서각의 어울림전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수화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이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서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강암 송성윤전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JJIN 일진그룹